

새 자료로 본 咸世德

오 애 리*

목 차

1. 머리말
2. 成長期 (1915.5.~1929.3)
3. 仁川商業學校 時節 (1929.4~1934.3)
4. 解放前 劇作活動期 (1934.4~1945.8)
5. 解放後 劇作活動期 (1945.9~1950.6)
6. 맺음말

1. 머리말

남북분단·좌우이념 대립의 뼈아픈 역사로 인해 그 삶이 묻혀야 했던 작가는 의외로 많다. 특히 월북작가의 경우는 단지 묻혔다기보다 의도적으로 지워진 경우에 속한다. 월북 극작가 咸世德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그는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는 생애조차 상당부분이 잘못 되어 있는 작가이다.¹⁾

이 글은 먼저 그의 생애를 밝힐 수 있는 기존자료 및 증빙서류 등을 수집, 1차 자료로 삼았다. 그리고 출신학교인 仁川商業學校(現 仁川高等學校)의 동창회명부를 바탕으로 현재 생존한 친구(한인 졸업생 25인 중 연락 가능한 제보자는 2인에 불과했다)를 제보자로 삼았다.²⁾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석사졸업.

주요논문 : 「咸世德 研究」

1) 이에 대해서는, 줄고, 「함세덕 연구」(단국대석사논문, 1991), pp. 5~7 참조.

크게 힘입은 바는 함세덕의 친동생인 함성덕의 폭넓은 증언(1991년 2월~3월)과 사진 제공이었다.

이 글에서는 함세덕의 생애를 편의상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폈다. ① ‘成長期(1915.5~1929.3)’, ② ‘仁川商業學校 時節(1929.4~1934.3)’, ③ ‘解放前 劇作活動期(1934.4~1945.8)’, ④ ‘解放後 劇作活動期(1945.9~1950.6)’가 그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함세덕의 생애를 재구성하는 것인데, 증언과 각종 기록 및 기존 연구 못지 않게 그의 작품을 비중 있는 자료로 삼았다.

2. 成長期 (1915.5~1929.3)

함세덕의 본적은 ‘京畿道 仁川府 龍里 壹七七番地’이다.³⁾ 祖父 咸善志는 정삼품 벼슬을 지냈고, 대원군 때 낙향하여 인천으로 내려왔다.⁴⁾ 부친 咸根 或은 仁川日本語學校(인천상업학교의 전신, 現 인천고등학교)를 졸업(제2회), 그후 ‘외국어학교’의 부교관으로 재직하였다. 함근욱은 羅州郡廳主事가 되어 ‘京畿道 仁川府 花平里 十八統一戶 四百五十五番地’(조부의 원적지)의 가족과 임시 떨어져 살게 되었다. 1915년, 그가 목포부청으로 발령 나자 부인과 그의 동생 가족(함세덕의 숙부댁)이 목포로 이주하였다. 함세덕은 그해 5월 23일, 부친 함근욱과 모친 宋根信의 2남 3녀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호적에는 ‘庶子男’인 ‘咸錦聖’이 있는데, 함금성은 함근욱이 나주에 근무하던 당시, 姜判心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함세덕의 이복형(3세 연상)이다. 함세덕이 ‘長男’으로 올라있기는 하지만, 목포로 이주한 이후 함금성은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살며 맏형으로 인정받았다. 인천상업학교 재학 당시의 학적

2) 李圭文은 함세덕과 인천공립보통학교, 인천상업학교 재학시 절친했던 친구이다. 함세덕의 가정환경과 제3자로서의 객관적인 시각 및 학창시절에 관련된 증언은 이규문에게 의존하였다.

3) 부록자료 1 참조.

4) 부록자료 2 참조. 남아있는 함세덕의 사진으로는 가장 앞선 것이다. 어린아이가 함세덕, 옆의 翁은 조부 咸善志, 뒷줄 오른쪽이 부친 咸根或, 뒷줄 왼쪽은 숙부 咸希豊이다.

부에 기록된 사항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⁵⁾ 이규문은 ‘당시 함세덕의 아버지가 庶子라 하여 이복형을 공부시키지 않았다’고 회상하는데, 사실은 木浦公立普通學校(現 北橋國民學校), 서울私立中東中學校를 마치고 그후 독학으로 의사가 되었다. 당시 그의 생모는 고향인 진도에 살고 있었다. 함세덕의 <海燕>(『朝鮮日報』, 1940)과 <心園의 挿話>(『文章』, 1941)에 등장하는 이복 남매 모티프는 이러한 가정환경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함세덕(兒名은 威聖達)⁶⁾이 태어난 곳은 ‘인천부 화평동 455’이다.⁷⁾ 그리고 출생 직후 이주한 곳은 ‘木浦府 北橋洞 九拾貳番地’이다. 그가 목포공립보통학교 입학 당시, 부친은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商業’에 종사하였다.⁸⁾ 입학 후 일년만에 다시 인천으로 이주, 仁川公立普通學校(現 昌榮國民學校) 2학년으로 전학한다. 부친의 직업은 ‘商業’, 주소는 ‘金谷里 十四’이다.⁹⁾ 국민학교 재학 당시 그의 성적은 10점 만점에 평균 8~9점으로 우수한 편이었다.¹⁰⁾ 李海浪과 李源康의 회고에 함세덕이 ‘1915년, 범용한 서민의 아들로 태

5) 가족 : 祖母-有, 祖父-無, 實母-有, 實父-有
 兄-1, 姉-2, 弟-1, 妹-1

보증인 : 威根彥

생도와와의 관계 : 父, 長男'

위에서 보듯이, 부친과의 관계를 ‘長男’이라 하면서도 형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6) 그의 집안은 ‘聖’을 돌림자로 썼고, 집에서는 그를 ‘함성달’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7) 누나(당시 7세)와 동생(6세 연하)은 함세덕이 목포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조부의 재적에는 그가 1915년 5월 23일, ‘인천부 화평동 455번지’에서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부록자료 3 참조). (본적과 출생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명시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4일에 출생한 사촌동생 威聖熙는 ‘목포부 북교동 92’로 신고되어 있다. 이상의 자료로 다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함세덕의 모친은 1915년 5월 23일 인천에서 함세덕을 출산, 10월 이전에 목포로 이주하고, 10월 4일에 함성희가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함세덕이 인천에 산 것이 불과 4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가 목포에서 출생한 것으로 생각해 온 듯하다. 필자는 앞의 줄고에서, 함세덕이 목포에서 출생했다고 했는데 새로 찾게 된 이상의 자료를 통해 그의 출생지는 인천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그가 실제적으로 유년기를 보낸 곳은 ‘경기도 인천’이 아니라 ‘전라남도 목포’였다.(부록자료 3 참조)

8) 함세덕에 의하면 조부와 함께 경자화(가족신)를 만드는, 일종의 제화점을 경영했다. (부록자료 4 참조)

9) 부록자료 5 참조.

10) 부록자료 5 참조.

어났다'¹¹⁾는 것은 이규문의 증언¹²⁾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 상황에만 초점을 둔 것으로, 함근육이 고등교육을 받은 것과 조부의 벼슬로 본다면 '범용한 서민'의 집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함근육이 근친과 동업으로 客主를 시작한 것은 함세덕이 12세 때 일이다. 객주는 일명 物產客主라고 하는데, 인천항에 들어오는 상품(주로 穀物)들을 위탁매매하는 직업이다. 상인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매매를 알선하여 소개비와 숙박비를 받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객주업은 건물이 없이는 영업이 어렵고, 상인들이 그들의 賣物을 맡겨들 만하다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숙소로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부의 직위, 부친이 객주업을 했다는 점, 그리고 동업이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함세덕의 성장 배경이 중류층이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봉건적 신분체계에서 고관의 후손이라는 지위와 근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상인계층이라는 양면성은 그를 연구함에 있어서 소홀히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그의 작품이 가난한 어촌을 다루었다는 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삶 자체를 왜곡하여 왔던 종래의 견해는 재론이 요구된다 하겠다.

인천상업학교에 진학하기 이전의 함세덕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자그마한 체구의 평범한 소년이었다. 함세덕은 1929년, 인천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다.

3. 仁川商業學校 時節 (1929.4~1934.3)

당시 인천에는 일인의 仁川市立商業學校(일명 南商業學校)와 한인의 仁川道立商業學校(일명 北商業學校)가 있었다. 이들은 상업학교라는 점만 일치할 뿐 현격한 수준차를 지니고 있었다. 북상업학교는 금융계로의 취업이 손쉬워 경쟁률이 높은 일류학교였던 반면, 서울로 진학하지 못한 일인들의 남상업학교는 매우 저급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함세덕이 인천도립상업학교에 진학하여(1929) 5학년이 되던 해에 이들 두 학교가 통합하게 된다. 그리하여 함세덕은 통합으로 이름이 바뀐 '인천상업학교'¹³⁾를 졸업하게 된 것이다.¹⁴⁾

11) 柳敏榮, 『韓國現代戲曲史』(弘盛社, 1982), p. 302.

12) 이규문은 함세덕의 집이 '그다지 잘 살지도 못살지도 않는 평범한 수준'이었다고 회고한다.

13) 이하에서는 '仁商'으로 약칭하였다.

14) 부록자료 6 참조.

‘仁商 20회’ 동창회명부에는 25인의 한인, 45인의 일인이 함께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仁商 시절, 함세덕, 이규문, 金昌建, 姜榮欽은 ‘四人組’라는 이름으로 절친했다. 함세덕은 사진에서도 보듯, 왜소하여 마른 편이었으며 단아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부록자료 7은 김창건이 만포진사건¹⁵⁾에 연루되어 권고 퇴학당하게 되었을 때(仁商 5학년)의 사진이다. 사실은 네 명 다 관련되어 있었는데 주동으로 지목된 김창건만 희생된 것이었다.¹⁶⁾ 이는 학생시절 그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己未年三月一日>(『開闢』, 1946)의 연판장 돌리는 부분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절친했던 그들은 일본으로 떠날 김창건과 월미도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 6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함세덕의 가족과 이규문은 그때 나누어 가졌던 사진을 각각 간직하고 있다.

5학년(1933) 여름방학, 함세덕은 친구들과 금강산 여행을 계획했다. 부모님의 허락을 얻지 못하자, 관악산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기어이 금강산으로 떠났다. 이 여행은 훗날 <童僧>(1939)의 창작동기가 되었다.

『童僧』은 東亞日報主催의 演劇콩클에 參加한 舞臺上의 處女作이다. 學窓時代에 金剛山에 天幕生活갔다가 摩訶衍에서 본 沙彌僧에서 얻은 幻像이 이 作品을 執筆케 한 動機이다.¹⁷⁾

부록자료 8¹⁸⁾은 바로 그때의 사진이다. 그는 캠핑을 좋아해 월미도 등에 놀러가 천막을 치고 며칠씩 묵곤 했다. 학창시절의 경험이 초기 작품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으리라 본다. 초기 작품의 배경설정 사실적 묘사는 단지 타작품의 영향이나 목포 인천에서의 성장 때문만 아니라 잦은 여행과 구체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舞衣島紀行>의 경우, <바다로 가는 騎士들>¹⁹⁾의 모작이라는 점만 강조되

15) 만포진은 중국의 지명인데, 이곳에 거주하던 한국민들이 일인들의 모략으로 본토인들에게 희생을 당한 일이 있었다. 이에 국내에서도 중국인들의 가계에 불을 지르는 등 보복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16) 이규문, 함성덕 증언.

17) 함세덕, 『童僧』(博文出版社, 1947), p. 208.

18)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함세덕.

19) J. M. Synge, <바다로 가는 騎士들>, 『演劇學報』 신극 60주년 기념호 제2집, 동국대연극영화학과, 1968.

어 작품 자체의 독창성은 경시되어 왔다. 그러나 무의도는 월미도 근처의 실제 섬이고, 작품에서와 같이 ‘떼무리’·‘대무리’라고 불렀다. 체험의 흔적은 소재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함세덕은 八尾島에 종종 망둥이 낚시를 갔는데,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燈臺’는 바로 팔미도의 등대를 그린 것이다.²⁰⁾

四面一帶, 暗礁에 圍繞된 西海岸의 어느 조고만 섬. 吃立한 奇岩怪石. 堆積된 貝殼땀. 風雨에 작인 島麓斷崖. 中央엔 雜草가 욱어진 손바닥만한 平地가 있다. 그뒤로 岩盤과 모래砂場. 右邊 섬 一角에 花崗岩 石壁으로 外廓을 둘러쌓인 白亞의 燈臺가 聳立해 있다. 石壁엔 尖穹形의 鐵扉로 올라가는 돌층대. 기술엔 三月부터 五月에 니르러 眞紅으로 海棠花와 冬柏이 피지만 지금은 앙상한 灌木이 있을 뿐이다.²¹⁾

또한 인천으로 이주하여 부친이 잠시 양계장을 경영했는데, 이때의 체험은 <닭과 아이들>(『東亞日報』, 1940)의 착상에 도움을 준 것 같다. 이렇게 전 작품에 고루 나타나는 소재와 서정적 성격은 그의 성장배경, 특히 仁商 재학 시절의 경험을 밑바탕으로 한 것이다. 함성덕의 증언에 의하면 함세덕은 희곡 이전에 시를 썼으며 辛夕汀·柳致環·吳章煥 등의 작품도 좋아했는데, 이는 초기 희곡작품의 낭만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규문은 함세덕이 4학년 때 졸업생 환송을 위한 연극 대본을 쓰고 연출도 맡았다고 회상한다. 이규문 자신도 출연했는데, 가난과 추위에 지친 이 땅의 백성들이 간도로 떠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제목이 <아리랑 고개>였다는 것으로 보아 박승희의 <아리랑 고개>를 공연했던 듯하며, 함세덕의 창작극이었다는 것은 이규문의 착오일 가능성이 많다. 어쨌건 분명한 것은 그때 이미 함세덕은 연극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고, 초보적이거나 연출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仁商 재학시 이사한 ‘仁川府 龍洞 二三七 十戶’ 근처에는 영화와 악극, 연

20) 小月尾島에도 작은 등대가 있었다. 그런데 작품의 대상이 된 큰 등대는 팔미도의 것이다(함성덕 증언). 부록자료 9 참조 (사진은 소월미도의 등대, 앞줄 맨 오른쪽이 함세덕).

21) 함세덕, <海燕>, 앞의 책, p. 122.

『童儻』(1947)에 실을 때, 『朝鮮日報』(1940)의 원작품을 고쳐 쓴 흔적이 있다. 그러나 등대를 묘사하는 부분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작품집만 인용하였다.

극을 공연하던 ‘愛館’이 있었다. 인천에 새연극이 들어오면, 그 다음날 시험이 있어도 반드시 보러갔다고 한다. 특히 연극배우 강홍식을 좋아했는데, 그는 후에 함세덕의 극에 출연하기도 했다.²²⁾

이상, 인천상업학교 시절은 극작가 함세덕 탄생의 밑거름이 된 체현과 습작의 시기라 하겠다. 함세덕은 1934년 인천상업학교를 졸업한다.

4. 解放前 劇作活動期 (1934.4~1945.8)

금융계통에 취직하는 상업학교의 상례를 깨고, 그는 일한서방(本町通 소재, 현 충무로)에 취직하였다.²³⁾ 보수가 월등히 적고,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 서점에 취직함으로써, 일상적 삶을 포기하고 작가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²⁴⁾ 첫 흔적은 <내 故鄕의 黃昏>, <저 南國의 이야기들>, <저녁> 등의 시에서 발견된다.²⁵⁾ 이 도피적 취직은 1년만에 끝이 났지만, 일한서방 재직시 알게 된 金素雲을 통해 그는 평생의 은사 柳致眞을 소개받았다.²⁶⁾ 그 무렵의 처녀작 <山허구리>(『朝鮮文學』, 1936)는 <바다로 가는 騎士들>의 모작이라는 비판과 아울러 사실주의적 요소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자신이 싱그의 영향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작품에서 다소간의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세진 : (…中略…) (追憶을 더듬는 듯) 밤과 바다를 사랑했구, 해양문학을 사랑했구, 늘 초불 켜구 방안에 혼자 있길 좋아했어요. 나두 누나한테서 침으루 바다의 부인이란 비극을 읽게 됐구, 싱그라는 고독한 애란의 시인의 바다와 어부와 섬에 관한 이야기 읽어보게두 됐어요.²⁷⁾

22) 이규문은 그 작품을 기억하지 못하며, 필자 역시 이를 확인해 보지 못했다.

23) 일한서방과 丸善, 德興書林, 博文書館은 당시의 대형 서점이다. 일한서방. 환선은 일인 경영(현 충무로 자리), 덕흥서림, 박문서관은 한국인 경영(현 종로 자리)의 서점이었다.

24) 부록자료 10 참조. 일한서방 재직 당시. 맨 왼쪽이 함세덕.

25) 『東亞日報』, 1935.2.1, 3.19, 9.27.

26) 유민영, 앞의 책, p. 302.

27) 함세덕, <海燕>, 앞의 책, p. 147. (고덕 인용자)

싱그를 비롯한 애란작가의 영향은 유치진에게도 발견된다.²⁸⁾ 申定玉은 〈바다로 가는 騎士들〉과 〈土幕〉을 대비²⁹⁾하고, 유민영은 〈山허구리〉를 〈바다로 가는 騎士들〉과 비교하여 그 영향관계를 밝히고 있다.³⁰⁾

〈山허구리〉는 〈바다로 가는 騎士들〉과 배경 및 비극 구조가 유사하고 흡사한 대사도 발견되지만, 더 잘 짜여진 갈등과 강렬한 비극성을 가지고 있다. 작품내에 강력한 세계와 나약한 자아의 대결이 집요하고 다각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바다로 가는 騎士들〉의 영향에서 그치지 않고 훨씬더 비극적으로, 한국적으로 소화·재창조되어 있다.

〈童僧〉(1939)은 『東亞日報』 주최의 제2회 연극대회에 참가, 상연되었다. 함세덕은 이 작품이 당시 몇몇 학교의 학예회 무대에 올랐으며 후에 영화화되었다고 한다. 확인 결과, 〈童僧〉은 1949년 〈마음의 故郷〉이라는 제목으로 동서영화사에서 제작되었으며 윤영규 감독, 최은희·변기종 주연으로 상연되었음이 밝혀졌다.³¹⁾ 한편 최근 MBC에서도 〈童僧〉을 특집극으로 제작 방영했는데 원작을 크게 손상시킨 실패작이었다.³²⁾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한 〈海燕〉을 계기로 함세덕은 그 예술성을 인정한 유치진과 본격적인 교류가 생겼다.³³⁾ 이후 함세덕은 유치진을 은사로 모시고 월북 얼마전까지 함께 활동하였다. 그리고 명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일한서방을 그만 둔 후 김소운과 아동잡지 『木馬』에 관계했는데, 〈五月의 아침〉(『少年』, 1940) 〈닭과 아이들〉은 이와 관련된 작품이다.³⁴⁾ 이즈음 그는 ‘劇硯座’에 관여하며 극단 참여를 시작했다고 한다.

함세덕이 35세로 사망하기까지 결혼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8) ‘내가 私淑하던 ‘안론·체훈’, ‘싱그’, ‘손·오케이시’ 등등의 작품에도 싫증이 났다. 그들의 수법과 그들이 觀照하는 세계만으로는 도저히 내 가슴의 불을 처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유치진, 『東郎自敘傳』(서문당, 1975), pp. 188~189.

29) 신정옥, 「유치진에게 미친 애란극의 영향(하)」 『한국연극』, 1978.2.

30) 유민영, 앞의 책, p. 306.

31)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실에 이상의 기록이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필름은 보관되어 있지 않다.

32) 원작의 내용을 현대식으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작품이 가진 서정성과 낭만적 모티프가 지나치게 왜곡되었다. 월북작가의 문혀진 작품을 발굴, 제작한 MBC의 의도는 높이 살만 했으나, 그 결과는 비판적이다.

33) 부록자료 11 참조. 오른쪽이 유치진.

34) 부록자료 12는 『木馬』에 관여하던 당시이다. 가운데가 함세덕.

그러나 실제로는 30세 즈음³⁵⁾, 부모의 강압에 의해 마음에 없는 결혼을 했다. 배우자는 고등교육을 받은 목사의 딸로 그와 동갑내기였다. 약 2년 만에 서로 합의하여 그녀가 개가하기까지 그는 연극에만 빠져 아내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각방을 썼다. <서글픈 才能>에는 재능없는 문학에 매달린 무능력한 장남(만균)과 형 때문에 자기 삶을 희생당하는 아우(천석)의 갈등이 체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千石 :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똥오줌을 날르고 소여물 쏘게, 누구때문였는데, 그 알뜰한 형때문이었어요. 박선생이 구장영감님하구 집에 와서, 무슨 일이 있드라두 만표만은 중학을 보내라구 하실 때, 나하구 아버지가 얼마나 맘을 굳게 먹었는데? 칠년동안 그하나 성공하길 하눌게 축수하구 살아왔어요. 어머니 고생 안하셨우? 그 꼬부러진 허리루 음내루 술지개미를 사리 댕기시든걸 생각하면, 속에서 자꾸 울화가 뻘뻘 견딜수가없어요. 우리집안 형편에 형이 전문학교 댕기게 됐어요? 대관질 형이 우리한테 해준게 뭐예요? 성공을 해서 우리집안 이름을 내게 했어요? 돈을 벌어서 한번인가 붙여준편이 있어요? 서울서 새로 계집 얻어가지구 형수더러 이혼해 달라고 지랄친것 밖에, 우리한테 뭐해준게 있나 말이에요?³⁶⁾

함성덕은 당시 이 작품을 보고 ‘형이 오랜만에 옳은 말 한번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³⁷⁾ 연극을 시작한 이래, 함세덕이 가계에 보탬을 준 적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도시락을 싸서 연습장소로 갖다 주는 형편이었다.

함성덕이 仁商을 졸업하자(1939) 함세덕은 장남의 의무³⁸⁾를 그나마 떠넘기고 일본으로 떠난다.³⁹⁾ 築地小劇場에 제출한 두 장의 추천서 중 한 장은 김소운의 것이었다고 한다. 일본 유학중 보내온 편지 속에는 곧 상연될 작품의

35) 함성덕이 해방 직전이라고 기억하고 있을 뿐이어서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

36) 함세덕, <서글픈 才能>, 『文章』 제2권 9호. 1940. p. 40.

37) 당시 함성덕의 이러한 생각은 가장의 역할에 관한 것만 지칭한 것이다. 작품이 실생활보다 선행되었던 만큼, 결혼에 관한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38) 이복형 함금성은 1939년 당시에는 이미 분가한 상태였으므로 함세덕은 실제적 장남의 역할을 해야할 처지였다. 함금성은 사망하기까지 남매들과 교류를 가졌고 그후 가족 묘지에 안장되었다.

39) 함성덕 자신이 仁商을 졸업한 즈음이라고 기억할 뿐이어서, 그 구체적 시기를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일본에서의 유학기간이 1~2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약 1년6개월간의 공백기를 보여주는 1942~1943이 아닐까 추정된다.

인쇄물도 있었는데, 함세덕과 일인 연출가의 공동연출이었다. 유학기간이 짧았고, 직접 관여한 작품도 한 편 뿐이지만 연출가로서의 본격적 출발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⁴⁰⁾ 함세덕은 공동연출 작품의 반응이 좋다고 편지를 보내 왔는데, 韓·日 정서의 유사성 및 그의 극작술을 고려할 때 납득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일본유학 시절을 뒷받침해 줄 기록 및 구체적 작품 등 실증적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못한 실정이다.⁴¹⁾

그가 귀국한 것은 대략 1943년 후반 즈음인 듯하다. 귀국 후에는 ‘현대극장’에 투신, 창작과 연출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기울인다. 그의 작품은 유치진이 연출을, 이원경이 무대장치를 전담하다시피 하였다. 함세덕의 작품은 부민관과 황금좌에서 주로 공연하였는데, 매번 성황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 <無影塔>⁴²⁾, <黑鯨亭>⁴³⁾, <南風>⁴⁴⁾, <酋長 이사베라>(『國民文學』, 1942), <エミレエの鐘>(『國民文學』에 일부, 1942), <鳳仙花>⁴⁵⁾, <町は秋晴れ>(『國民文學』, 1944) 등 국민연극 작품이 창작 혹은 각색되어 무대에 올랐다. 이에 대해 함세덕은

- 40) 부록자료 13은 축지소극장 유학 당시이다. 겨드랑이의 딱딱이, 무릎을 덧댄 바지가 인상적이다.
- 41) 함세덕의 글이 일본 연극잡지 『デア트로』에, 그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고 하는데 필자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이 자료가 보충된다면 일본 유학시기와 그 활동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함성덕 증언).
- 42) 1940년에는 유치진 원작·함세덕 각색·유치진 연출로 ‘高協’에서, 1941년에는 ‘現代劇場’에서 공연하였다. 이해랑, 『藝術에 살다(13)』 『日刊스포츠』, 1978.5.24. 유민영, 앞의 책, p. 137 참조.
- 43) <黑鯨亭>은 마르셀·빠놀 작 <마리우스>를 변안한 작품으로 1941년 ‘현대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원작무대 말세이유를 故郷 仁川으로 바꿔 쓴 그의 변안 솜씨는 오리지널보다 오히려 더 충실했다는 평을 듣게 했다.’고 한다. 이해랑, 『藝術에 살다.(17)』 『日刊스포츠』, 1978.5.29. 참조.
- 44) <黑鯨亭>을 무대에 올리자, 역사극의 경우와는 달리 관객이 없었다. 그러자 제목을 <南風>으로 바꿔, 1943년에 ‘현대극장’에서 다시 공연한 것이다(1943). 이제껏 <南風>이 또다른 친일극으로 추측되어 왔으나 <黑鯨亭>의 제목만 바꾼 동일작품임을 밝혀둔다.
- 45) <鳳仙花>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고 한다. 어느 음악가가 자기의 제자인 가난한 여자와 사랑하여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부유한 여자가 등장하자 음악가는 그녀를 결혼상대로 택하여 사랑하는 여인을 버린다는 내용이다. 버림받은 가난한 여인을 봉선화로 형상화한 것인데, 주변의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삼은 것이다(함성덕 증언). 1944년, ‘현대극장’ 공연.

반성과 더불어 자신의 의도를 『童僧』 발문에 적고 있다.⁴⁶⁾

오늘날 친일극이라 비판을 받는 <落花巖>(『朝光』, 1940), <酋長 이사베라> 등은 오히려 그 당시 많은 관객을 획득하였다. 사전 검열에 의한 삭제, 친일 대사의 상대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성황을 이루었음은 심층적 재고를 요하는 부분이다.⁴⁷⁾ 강압 하에 쓰여진 친일작품의 저변에 작가 나름의 민족 정신이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그에 대한 비판 역시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함세덕의 국민연극작품을 전적인 친일 또는 내면화된 저항의 어느 편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실제작품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함께 신중하게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⁴⁸⁾

함세덕은 자신이 국민연극을 통해 한가지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技術’이라고 했다.⁴⁹⁾ 1936년 <山허구리>로 극작을 시작할 당시 그의 나이 22세였고, 일제치하를 벗어나 해방을 맞을 때 겨우 31세였다. 작가로서 이제 출발하기에도 결코 늦지 않은 나이에, 그가 얻은 ‘技術’은 검열과 삭제의 붉은 줄을 피해 나가려는 뼈아픈 경험의 산물이었다고 하겠다. 마침내 깊고 어두

46) ‘내가 處女作 『산허구리』를 朝鮮文學에 發表한 때는 一九三六年이었고 執筆請託을 받게 될때 썩트자 서리를 맞는 格으로 日帝의 나치스를 본받은 強壓의 演劇統制政策에 動員되는 悲慘에 逢着했었다. 그러므로 내 作品의 거이가 日本帝國主義의 侵略戰爭中에 세워졌으며 文學과도 달리 道警察部, 警務局, 管轄署의 三重四重의 失線과 憲兵隊, 軍報道部의 符箋을 뚫지 않으면 안되는 野蠻의 檢閱網은 뻗어 나갈려는 나를 文字 그대로 窒息去勢하고 말았다. 革命家가 못되는 癡卒한 나는 無影塔, 落花巖, 어 밀레鍾 等の 浪漫劇으로 鄉愁와 回顧的인 民族感情에 呼訴하여 日帝에 消極的이나 마 反抗하였고, 酋長의 末路 卍(殉死) 等を 劇化하여 弱小民族의 悲憤을 노래했지만, 結果에 있어서는 朝鮮文化의 正한 發展에 逆行的 役割을 한 것에 不過하게 되었다.’ 함세덕, 앞의 책, p. 207. (고덕 인용자)

47) 당시의 작가들은 예외없이 총독부의 사전검열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는 함세덕도 예외가 아니었다. 검열과 무차별한 삭제로 원작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면 단원이 물러와 새로 써주다시피 한 적도 있다(함세덕 증언).

48) 필자는, 역사를 극화하여 회고적 감상에 젖게 하려는 국민문학의 어용적 의도를 작가가 역이용한 것이라 본다. 즉, 작품 내에 저항을 내포, 이중적 구조로 위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의 작품이 대중성을 획득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때, 그러한 이중성이 있지 않다면 친일극이 피압박민에게 인기를 얻었다는 궤변, 민족허무주의가 되고 만다. 필자는 <落花巖>과 <酋長 이사베라>만을 다루었는데, 이후 대상 작품을 확대하고 좀더 심도있게 재분석하여 논의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줄고, 앞의 글, pp. 28~47.

49) 함세덕, 앞의 책, p. 207.

있던 고통의 역사를 넘어 1945년, 해방을 맞는다.

5. 解放後 劇作活動期 (1945.9~1950.6)

타의에 힘입어 불시에 얻게 된 해방은, 얻은 것 못지 않게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을 산적해놓고 있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극심한 좌우익의 대립상황이었다. 문학적 역시 좌우익이 팽팽히 대립하여 ‘민족문학’에 대한 신념과 방향도 시각의 편차에 따라 판이하였다. 해방 직후, 함세덕은 朝鮮演劇建設本部(약칭 演建)에 가담하고 황철, 박민천, 서일성 4인과 극단 ‘樂浪劇會’를 조직하였다. 그 창립공연으로 설리의 작품 <群盜>를 번안했다는 <山賊>⁵⁰⁾을 공연하였는데 매우 인기가 좋았다. 그는 『童僧』 발문에서 해방이 작품활동의 분기점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 戯曲集은 作者咸世德의 前時代의 遺物로 保管되는데만 刊行意義를 찾을수 있을줄로안다. 나는 八·一五를 계기로 完全이 이 作品들의 世界에서는 탈피하였다.⁵¹⁾

작품집에 실린 작품이 <童僧>, <秋夕>⁵²⁾, <舞衣島紀行>, <海燕>, <감자와 쪽제비와 女敎員>(『童僧』, 1947)⁵³⁾인 것을 보아 ‘완전한 탈피’란 감성성이 농후한 초기 <童僧>이나 <海燕>류의 작품도, 친일대사로 뒤덮여야만 했던 국 민연극작품도 아닌 새로운 시도와 적극적 도전의식으로 보인다.

먼저 <夏穀>은 전면삭제되었던 <감자와 쪽제비와 女敎員>을 全文改作한 작품인데, 1946년 연극동맹의 ‘희곡의 밤’에서 낭독되고 다음해에는 예술제에서 공연되었다.

1947년 1월, 미군정 경찰총감 장택상의 특별고시가 발표되었다. ‘예술을 빙자한 정치선전의 전면금지’에 좌익측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안영일, 함세덕, 문예봉 등 30여 명의 무대예술대표가 러취 미군정장관에게 ‘고시취소 요구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이것이 묵살되자 ‘문화단체총연맹’에서 상임

50) 1946년, ‘낙랑극회’에서 공연.

51) 함세덕, 앞의 책, p. 207.

52) <서글픈 才能>과 같은 작품.

53) 『春秋』에 실렸으나 검열로 전면삭제 당하였다.

위원회를 열고 김남천, 함세덕, 김기림 등이 중심이 되어 ‘문화옹호 문화인 예술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지만 또다시 실패한다.⁵⁴⁾ 이런 배경 하에 함세덕이 ‘완전한 탈피’라 표현한 성격의 작품들이 창작, 공연된다. 즉, <太白山脈>(5막6장), <古木>(3막『文學』,1947)이 그것이다. <太白山脈>은 그 해 2월 26일, 국도극장에서 開演될 예정이었으나 돌연 상연중지 당한다. 다시 검열을 거쳐 상연하게 되자 극장 앞은 군중으로 대혼잡을 이루었다고 하였는데, 공연 도중 삭제한 부분을 연기하여 또다시 중지 당했다. 마침내는 당국자 일회회에 연습을 하고 28일 오후 2시에 공연이 시작되었는데, 관객으로 장사진을 이루었다.⁵⁵⁾ 이규문은, 함세덕이 <太白山脈>을 계기로 좌경했다고 들었으며 이를 관람한 친구에 의하면 관객은 엄청난 수효였다고 증언한다.

해방에 즈음하여 그의 가족은 ‘서울特別市 鐘路區 東崇洞 貳番地의 拾九’로 이사하였다. 그리고 1946년, 연극이 인연이 되어 만난 10세 연하의 여인과 이번에는 ‘서로가 간절히 원한’ 결혼을 하였다. 결혼 직후, 1947년 제2차 전국문학자대회가 실패하자 문인들이 대거 월북하는데⁵⁶⁾ 함세덕도 그 일원으로 알려져 있다.⁵⁷⁾ 그리고 약 1년 후 그의 아내도 남편을 따라 북으로 갔다. 함세덕의 아내는 북에서 아이를 하나 낳았으나 곧 죽고 말았다.

朴英鎬, 宋影, 申鼓頌, 韓泰泉, 黃澈, 安英一, 羅雄, 韓曉, 金史良, 南宮滿, 함세덕 등 월북 연극인들은 북한연극의 발판을 세웠다. 이들은 당의 노선에 따라 목적극을 썼는데 즐겨 다룬 내용은 남한의 반정부투쟁이었다. 함세덕 역시 43항쟁을 다룬 <山사람들>, 李承晩을 비판한 <大統領>을 창작했는데, 그의 작품은 북의 문학사에 언급되지 않는다. 오히려 엉뚱하게 <童僧>이 언급된 정도이다.⁵⁸⁾

54) 이기봉, 『북의 문학과 예술인』(사상사회연구소, 1986), pp. 229~230.

55) 『獨立新聞』, 1947.2.27, 『自由新聞』, 1947.3.2. 참조.

56) 이철주, 『북의 예술인』(계몽사, 1966).

이기봉, 앞의 책.

권영민 편, 「남·월북문인 인명록」, 『문예중앙』 1987. 겨울호.

57) 그러나 정작 가족들은 그가 월북한 날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여러 조직이 난무했고 모임도 잦아, 함세덕이 여러날 들어오지 않고 문인들이 대거월북했다기에 월북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부록자료 14는 월북 조금 전에 찍은 것으로 그의 마지막 사진이다.

58) “『비판』지는 <도념>을 ‘신파로도 수준 이하의 작품’이라고 말하면서 ‘동양극장의 연극과 <도념>과 여다가 무엇이 달랐는가 다시 한번 대조해 보고 부끄러워 함이 있으라’고 규탄하였다”고 하여 1939년 4월 잡지 『비판』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韓曉, 『조선연극사개요』(국립출판사, 1956), p. 359 참조.

1950년 6월 29일, 적십자병원의 연락을 받고 함세덕이 달려갔을 때에 함세덕은 이미 사망한 후였다. 전쟁이 발발하여 집으로 오는 도중에 신촌 부근에서 폭탄 파편을 맞았다고 한다. 유달리 그의 죽음은 여러 증언자에 의해 흥미에만 치우친 채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그가 남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진격 중이었던지의 부분은 극히 상반된 견해가 맞서 있다. 어느 편도 이를 증명할 수 없는 만큼, 가시적 상황에 대한 의미부여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것이 극작가 함세덕 연구의 선결문제는 아니라고 본다.⁵⁹⁾

그는 트럭에 실려 병원에 왔는데 복강내출혈로 혈액이 부족하여 수술 도중 사망했다.⁶⁰⁾ 당시 의사는 수술 직전까지 그가 의식이 있었고, 좀더 일찍 수술을 받았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 했다. 3년만에 돌아온 함세덕의 시신은 함세덕이 장만해준 양복 차림으로, 떠날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남매들은 양친께 비밀로 한 채, 장충단 뒷산(현 신라호텔 자리)에 임시묘지를 마련했다. 6개월쯤 후 만삭이 된 그의 아내가 남으로 내려왔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과 동시에 모든 배급이 끊어져 살 수가 없었다며 그녀가 왔을 때에 비로소 그의 부모는 함세덕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⁶¹⁾ 친정과 시댁을 오가던 그녀는 온가족의 반대를 듣지 않고, 함께 왔던 일행과 다시 북으로 가고 말았다. 무엇보다, 뱃 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재차 월북하게 한 직접적 이유였다. 당시 남한정세가 자신과, 태어날 아이의 평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그녀는 만삭의 몸을 끌고 피붙이 하나 없는 북으로 다시 간 것이다.

그후 1·4 후퇴 때, 함세덕의 가족은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된다. 그때까지 함세덕은 형이 관계한 연극의 대본 및 기타 유인물, 仁商시절의 詩作 노트, 사진 등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는 逆産(부역자

59) 함세덕이 좌경하고, 월북한 참 이유를 필자는 명확히 밝혀낼 수 없었다. 그러나 스승 유치진과의 감정대립이 그 원인이었다는 식으로, 그 본질적 이유가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원경, 「뿌리를 못내린 희곡작가들」, 『동서문학』(동서문학사, 1988.8), p. 64.

60) 호적에는 '서울特別市 鐘路區 東崇洞 貳番地의 拾九'에서 사망, 신고자는 함세덕으로 되어 있다.

61) 함세덕의 아내는 그들이 월북시 가져간 물건 등을 팔아 생활했고, 함세덕이 월북 이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곤 했다고 말했다(함세덕 증언). 실제로 그는 월북을 통하여 자유로운 창작 활동도, 생활인으로서의 기반도 얻을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증언이 생존한 그의 가족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자칫 객관성 결여의 난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의 재산)이라 하여 유리창 한 장 남김없이 뜯겨나간 상태였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함세덕의 사진은 피난 때 챙겨갔던 몇몇에 불과하다. 그의 묘지는 수복 후 망우리에 있는 가족묘지로 이장했지만, 아직까지 비석이 세워지지 못하였다.⁶²⁾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만삭의 몸으로 떠났던 그의 아내가 북에 살아있다면 올해(1991) 66세 전후일 것이고, 함세덕의 아이는 이제 42세로 장성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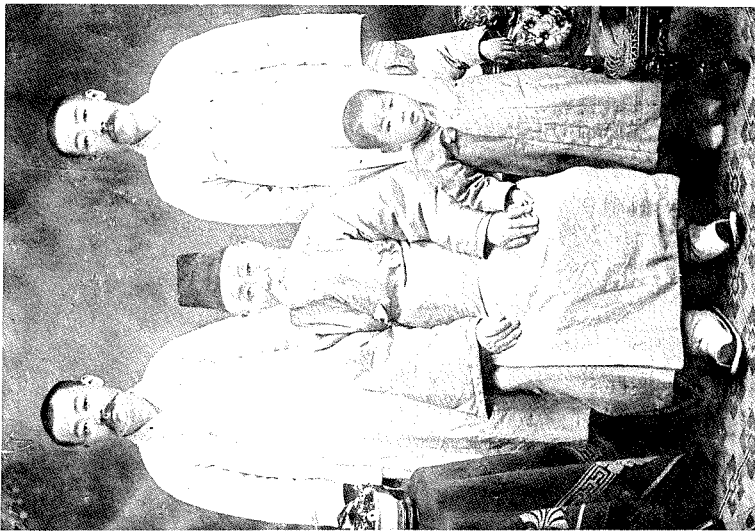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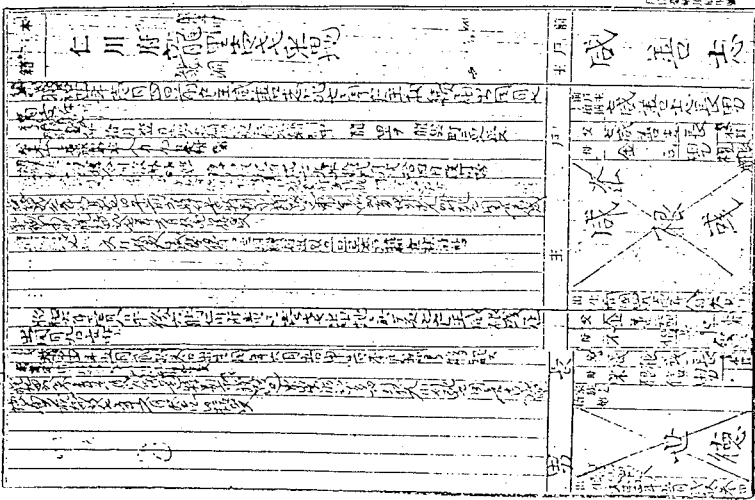
6. 맺음말

이상에서 함세덕의 생애를 기록과 증언, 작품을 통해 재구성해 보았다. 그의 생애를 추적, 형상화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먼저 그는 해방전 유치진, 서항석 등과 더불어 ‘극연좌’에서, 박민천, 유치진 등과 ‘현대극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였다. 해방 후에는 ‘낙랑극회’를 공동조직, 활동하였고 잠시 극단 ‘白花’에 가담한 적도 있다. 즉, 그는 유치진이 대표였던 ‘극연좌’에서 단원으로 있었고, ‘현대극장’, ‘낙랑극회’에서는 극단을 운영한 실무진이었다. 그런데도 기존의 증언 및 이를 토대로 한 연구는 그가 극단의 정식단원으로 활동한 적이 거의 없다고 기술해 왔다. 또 증언자들의 정미한 착오나 누락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 의외로 많았다. 지금까지 전혀 알려진 바 없었던 일본유학시절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또한 실증적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그가 월북작가라는 사실이 매년 난관으로 작용하였다.

함세덕에 대한 연구가 해금되었다고는 하나 참의미의 해금은 연구에 대한 공식적 허용만은 아닐 것이다. 이 땅의 문인들에 대한 출판과 논의가 금지되어야 했던 불행한 우리문학사는 지루하고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해금이 라는 통로를 찾게 되었고, 함세덕 역시 그로 인해 다시 깨어나는 작가라 하겠다. 분단 이데올로기의 편린들로 삼팔선 밑에 매장되어야 했던 것이 함세덕만의 경우가 아닌 만큼, 더더욱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소생하는 좋은 범예가 되어야할 것이다.

62) 부록자료 15 참조. 형 함금성의 묘를 이장하는 사진인데, 왼쪽부터 차례로 그의 부친, 모친, 그리고 맨 오른쪽이 함세덕의 묘이다.

이제 함세덕이 탄생한 지 어언 80년, 그 생애에 대한 제보자의 증언은 거의 한계선 상에 와 있다. 이 시점에서, 이 글은 작가 연구의 밑바탕이 되어야 할 생애를 증언과 기록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로부터 함세덕에 대한 연구가 ‘事實性’을 토대로 비로소 출발하기를 기대한다.



자료 1. (위) 함세덕의 호적대장

자료 2. (아래) 함세덕의 가장 오래된 사진.(어린이가 함세덕, 왼쪽부터 조부, 부친, 숙부)

<p>宗 氏 孫 德 世</p> <p>大正四年五月廿九日 孫 德 世 生</p> <p>大正四年五月廿九日 孫 德 世 生</p>	<p>孫 德 世</p> <p>大正四年五月廿九日 孫 德 世 生</p> <p>大正四年五月廿九日 孫 德 世 生</p>	<p>孫 德 世</p> <p>大正四年五月廿九日 孫 德 世 生</p> <p>大正四年五月廿九日 孫 德 世 生</p>	<p>孫 德 世</p> <p>大正四年五月廿九日 孫 德 世 生</p> <p>大正四年五月廿九日 孫 德 世 生</p>
--	--	--	--

<p>宗 氏 孫 德 世</p> <p>大正四年五月廿九日 孫 德 世 生</p> <p>大正四年五月廿九日 孫 德 世 生</p>	<p>孫 德 世</p> <p>大正四年五月廿九日 孫 德 世 生</p> <p>大正四年五月廿九日 孫 德 世 生</p>	<p>孫 德 世</p> <p>大正四年五月廿九日 孫 德 世 生</p> <p>大正四年五月廿九日 孫 德 世 生</p>	<p>孫 德 世</p> <p>大正四年五月廿九日 孫 德 世 生</p> <p>大正四年五月廿九日 孫 德 世 生</p>
--	--	--	--

자료 3. (왼) 함흥지역의 함씨본관, 자료 4·5. (오른) 함흥지역의 함씨본관, 함흥지역의 함씨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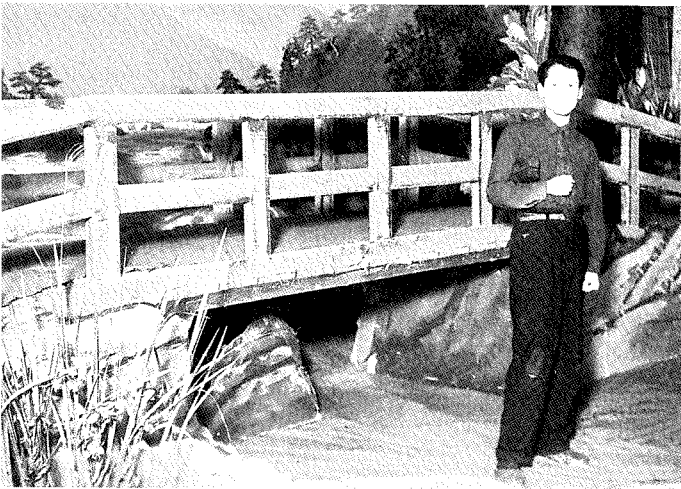


▲ 자료 8. 인천상업학교 5학년 때 금강산 장안사에서.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함세덕)

◀ 자료 9. 소월미도 등대에서. (앞줄 맨 오른쪽이 함세덕)



- ▲ 자료10. 일한서방 재직시절 (맨 왼쪽이 함세덕)
- ▲ 자료11.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海燕〉으로 당선하고 유치진과 함께. (왼쪽이 함세덕)



자료12. (위) 『木馬』에 관여하던 시절. (가운데가 함세덕)
자료13. (아래) 축지소극장 유학 시절.



- ◀ 자료 14. 월북 직전에 찍은 그의 마지막 사진.
- ▼ 자료 15. 형 함금성의 묘를 이장하는 사진. (왼쪽부터 부친, 모친, 함세덕의 묘)

